



4면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 전주매일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음 5월 13일) 제35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준비 '박차'

자치도, 정읍시·전북대 등과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협약 글로벌 시장 진출 상호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분야를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이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와 정읍시, 전북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재)한국동물약품평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엘랑도동물약품(주), (주)휴넷, 우진비엔지(주), 한국팜벤(주), (주)케이사이드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대응을 위한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이학수 정읍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정은주 안전성평가연구소장, 김원일 한국동물약품평가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현진 한국엘랑도동물약품(주) 대표, 오홍근 (주)휴넷 대표이사, 이성호 우진비엔지(주) 연구소장, 김달중 한국팜벤(주) 대표이사, 유영국 (주)케이사이드 대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연구특구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이학수 정읍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정은주 안전성평가연구소장, 김원일 한국동물약품평가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현진 한국엘랑도동물약품(주) 대표, 오홍근 (주)휴넷 대표이사, 이성호 우진비엔지(주) 연구소장, 김달중 한국팜벤(주) 대표이사, 유영국 (주)케이사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헬스케어 분야 규제특례를 통해 기술개발, 기업 유치·지원,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초격차기술 선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도·기관·기업 등이 모여 전략기획 회의 등 거점 사업계획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반려동물 분야·규제분야 전문가 자문 및 중기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동물용 의료(동물용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펩타이드 △동물관리 소프트웨어(AI기술기반 ICT융합 기술) 3개 분야 세부규제를 발굴하고 국내·해외 실증 및 인증을 지원해 동물 헬스케어 관련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실증 거점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농생명 소재 활용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개발 HW, SW

기 구축, 우수한 비·임상 인프라 등 최적화된 농생명바이오 기반 강점을 활용, 전북형 동물헬스케어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용 의약품 산업 1번지를 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우분을 새로운 에너지로 만든다

## 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가동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성공 기원 기념식... 전국 최초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우분을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혁신의 테스트 베드로 본격 가동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을 고체연료화하는 실증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정성주 김제시장,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안병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열병합발전소 기업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올해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를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로 선정했다.

이에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정읍시, 부안군, 전주김제자원순환센터)은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을 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을 개시했다.

이번 사업으로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68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6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1ha(만㎡)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9,000그루를 심거나, 자동차 3만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러 전주김제자원순환센터 김제자원순환센터는 대규모시설 준공 이전에 우분 50% 이상과 톱밥 등 보조원료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하루 약 8톤을 생산해 올 하반기부터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난방 보조원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실증 기념식을 통해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분 고체연료 하면 전북특별자치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라며,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오늘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의료공백 최소화

전북자치도, 공공병원·19개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 달빛어린이병원 등 정상 운영

전북자치도에서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18일로 예고됨에 따라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1항에 근거해 도내 의료기관 1,242곳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한 바 있다.

전북도의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5%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18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방문 예약되는 내원환자에게는 사전 진료를 받도록 유선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도내 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차질 없는 진료와, 야간·토·일·공휴일 소아 환자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5곳(다슬아동병원, 대자인병원, 해맑은연

합소아청소년과의원, 김제민음병원, 부안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도 정상 운영되며,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필수 의료공백 방지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료계 휴진에 따른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앱 연(응급의료

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 의료재단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면서 "상황중요시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집단휴진에 빈틈없이 대응해 도민 의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행안부, '부안 지진' 전북에 특교세 10억 긴급지원

이재민 구호·피해지역 잔해물 처리 등에 활용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와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진단을 비롯한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전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전북 부안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단

안전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유리창 파손, 화장실 타일 깨짐 등 502건의 시설피해가 신고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자연특별시 무주**

**고향사랑 기부제**

**나눔 실천**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금 사용자: 취약계층지원, 청소년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부방법-**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로그인 > 기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택 > 무주군에 기부하고, 기부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무주에 기부하고 답례품 받아주세요.

자연특별시 무주